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새벽 6:30 저녁 19:00	(목)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사무실 문의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 알 림

- 다음 주일(12/27)은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교구의 지침
- 비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20인 이내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참석 못하는 신자들은 영상 매체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판공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안 넣으신 분은 판공 성사 처리가 될수 있도록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대림·성탄 교리문제지(골든벨) 및 대림 신앙실천표(대림저금통) 제출 안내 *

- 제 출 : 12/25 성탄 대축일 미사
- 시 상 : 대림절을 성실하게 준비하신 분에게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10:30 미사 중에 시상합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교육 봉사자 모집 (국어·영어·수학)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대림절 판공성사 안내

대림절 판공성사는 미사 30분 전(후)에 실시합니다.
※ 구역별 판공성사 안내

일 자	구 역	일 자	구 역
12월17일	1~5구역	12월18일	6~11구역
12월21일	12~15구역	12월22일	16~20구역
12월23일	21~24구역 및 구역 외		

· 시 간 : 10:30 ~ 11:30, 14:00 ~ 15:00

※ 본인의 고해만 간략하게 합니다.

● 성탄, 송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24일 (목)	아침미사	6:30(평일 미사)
	성탄 밤미사	19:00/21:00, 19:00(중·고등부, 소성전)
25일 (금)	성탄 대축일	10:30, 12:00, 16:00(유·초등부) 19:00, 19:00(청년, 소성전)
31일 (목)	아침미사	6:30(평일 미사)
	송년미사	20:00 (저녁 7시 미사는 없습니다)
2021년 1/1(금)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06:30, 10:30, 12:00 (저녁 7시 미사는 없습니다)

● 다음주일 (12/2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6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2월 9일 ~ 12월15일)

• 교 무 금		8,345,000 원
• 주일헌금		2,864,700 원
• 자선주일 2차헌금		441,000 원
• 감사헌금	익 명20만원 정윤남 5만원 전을경 5만원 김수자10만원 김시아 5만원 김진수10만원 김정분10만원 장현우 5만원 강계화30만원 이춘자 3만원 이지현20만원 최지연10만원 김용환10만원 최대옥 5만원	
• 성탄맞이 불우이웃 돕기	든솔신평 5백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12/20	박해선	심재순 임공섭 도현만 최상림	최웅조 정재경
12/27	구민서	오성환 서윤석 신종구 김진수	안상록 정홍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9:00
12/20	김광수 최석준 박형순 오광운	손상민 이계명 장인홍 김인기	이운영 최석준		
12/27	김광수 박용환 김인기 장인홍	손상민 오광운 박형순 최창열	이운영 최석준		

● 주보 7면

- 거리두기 2.5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시간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안내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거리두기 2.5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시간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2/20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구역 외	1~ 5 구역	6~11 구역
12/27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구역 외	1~ 5 구역

- 구역 외 신자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안내

-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본당과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발급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명의를 변경하실 분은 **12/25(금) 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으로 납부자 변경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2016년 이후에 제출하신 분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20.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느님 사랑의 기본 계획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과 깊은 친교를 맺도록 초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교 곧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세례와 다른 성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선사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교회는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활동을 통해 인류 공동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21. 교회에서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안에 하느님을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느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어 세상이 그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 나라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사가 베풀어지는 곳이면 어디나 죄와 죽음의 낡은 세계가 근절되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곧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을 행동으로 확실히 옮기지 않으면, 성사는 공허한 표지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를 거절하면서 영성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성사는 사랑을 외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가장자리 끝까지 갈” 각오를 하게 합니다. “지리적인 경계만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한계예까지 가게 합니다. 죄 신비의 한계, 고통의 한계, 불의의 한계, 무시의 한계, 그릇된 종교적 실천의 한계, 사고의 한계, 모든 환난의 한계예까지 가게 합니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추기경)

어머니요 스승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과 기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그의 활동은 어떠한 자리에서나 확고하고 민첩하고 완전히 인도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배려한다. 그 까닭은 이렇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은 견디어 냅니다.”

(1코린 13.4-7)

요한 23세 교황, 회칙 <어머니요 스승> (1961년) 257항